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1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1. 04. 22. (총 12 쪽)

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22.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늘(4/22) 오전 11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초대 받아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미얀마지지모임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 한국의 3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미얀마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것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이 출범시킨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아세안 국가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와 군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 등 아세안이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서 군부 쿠데타 문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3.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기자회견 이후 공개서한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들에 전달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에 대한 연대 발언 : 상현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공동대표)
- 쿠데타 주역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규탄 발언 :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 호수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윤소희 (해외주민운동연대 활동가)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에 공개서한 전달

▣ 붙임1.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문/영문)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오는 2021년 4월 24일 열리는 미얀마에 대한 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32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세안의 지도자들과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국제사회 행위자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끔찍한 쿠데타와 잔혹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평화 시위자에 대한 폭력 진압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인해 악화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최고위급 정책결정기구에서 미얀마의 끔찍한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의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사태를 미얀마 국내 문제만으로 간주해 내정간섭 불가와 주권에 대한 과도한 존중이라는 '아세안 방식'에 따라 의미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결론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입장이 달라 아세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세안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반면, 군부는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미얀마 국민에 대한 고의적이고 살인적인 공격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회의(IAFMM)에서 도출한 결과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대응은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의 의장 성명은 군사 정권의 잔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아세안은 군 인사 및 군부 기업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 및 국제적 무기 수출 금지와 미얀마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해와 정치적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안의 집단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만이 지금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부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취급하기로 아세안 지도자들이 결정한다면 이는 군부의 범죄를 정당화할 것이고 따라서 미얀마 국민과 아세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아세안 시민들의 운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아세안과 그 회원국은 76%의 연방의회 의원, 소수민족 지도자, 시민불복종 운동, 그리고 미얀마 민중이 지지하는 총파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를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의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를 대표해야 하며, 전례없이 잔인하게 국가를 장악한 불법적인 군부가 대표해서는 안된다.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이 서한을 보내는 지금도,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과 살인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군부는 지금까지 738명을 자의적으로 살해하고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3,261명을 체포했다. 카렌족과 카친족 지역에서는 군부가 마을을 폭격해 3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이러한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은 안전은 물론 건강, 주거지, 식량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난민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포함됐다. 피난 중에 아이를 낳은 여성의 사례도 있었다. 사태의 엄중함과 늘어나는 희생자들,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아세안 지도자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경청하고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미얀마에 관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형식과 결과 모두에 있어서 판단 근거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하여 아세안 정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불법적인 군부세력이 미얀마의 대표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라.
- 합법적인 대표인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의 대표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하라.
- 시민과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지지자와 언론인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인권 옹호자, 시위대, 시위 지도자,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라.
- 미얀마 상황을 감시하고, 폭력 사태를 종식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권에 기초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협상을 돕기 위한 공동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사이의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확립하라.
- 국제적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 군과 군 인사, 그리고 군부기업들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같은 국제사회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라.

- 국경 지역의 인도적 지원 경로 개방을 비롯하여 미얀마 내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접근을 보장하라.
- 로힝야족을 포함한 미얀마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장하라.
-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지위와 상관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며,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계약을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라.
-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 정지를 포함하여 미얀마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아세안은 군부가 국민통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군이 조건 없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국민통합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도록 하며, 군부가 ICC에 회부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립된 후에야 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하라.

합의와 내정 불간섭이라는 '아세안 방식'을 벗어나야만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의미 있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다. 미얀마는 실패한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긴급하고 비참한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세안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견고하고, 정의롭고, 인도적이며, 현실적인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기구라는 아세안의 명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신중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와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과 사명을 해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한국시민사회단체(총 328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사)녹색전환연구소, (사)대구YWCA,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제주다크투어,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강릉YWCA, 강진읍교회,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 환경소모임, 경남민주연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YWCA, 공마실아이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명여자기독교청년회, 광양YWCA, 광주YWCA,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괴산군 성평등강사단,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산여자기독교청년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여민회,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김해YMCA, 김해YWCA,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난민인권센터,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 남양주YWCA,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원YWCA,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울산,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논산YWCA,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담쟁이인문학교, 답엘에스, 대전 YWCA, 대한성공회 울산교회,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동요어른철부지, 동해여자기독청년회, 두레방, 두레방쉼터, 로hing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음자리명상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66개 단체),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민중당경남도당,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노조, 부산YWCA, 부천YWCA, 비평그룹 시각,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무지개뜨는언덕, 사)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이기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광주여성영화제,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텐포원, 사천YWCA,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상남영화제작소, 새교회를준비하는 만두파티,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서귀포YWCA, 서울녹색당, 서울대학교메아리동문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천 와이더블유씨에이, 섬돌향린교회,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YWCA, 성문밖교회, 성미산학교. 세계시민선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순천YWCA, 시대복지공감, 시민연대 통영지회, 시민의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안동YWCA, 안산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YWCA,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산YMCA, 양산YWCA,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어린이책, 여수YWCA, 연구공동체 인권과스포츠,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파교회,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용광교회,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주YWCA, 유쾌한공동체, 의정부YWCA,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영화제 MWFF,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연구행동모임 마르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 시민의힘, 인천YWCA,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자유존엄아시아, 자카르타 촛불행동,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교조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경남연합, 전주YWCA,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금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양산지역위원회, 제주YWCA, 제천YWCA,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사회복지공리소 협동조합, 진보3.0,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YWCA, 진해기독여성청년회, 진해여성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여자기독교청년회, 창작21작가회, 채식평화연대, 천안여자기독교청년회,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주YWCA,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춘천YWCA,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주YWCA, 콜렉티브
 뽕굴, 통영YWCA, 통영거제한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쟁하는 활동가 소모임, 트랜스해방전선, 파주YWCA,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YWCA, 평통사마창진지회, 포항YWCA,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푸른내서주민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하나교회, 하남YWCA,
 한교회, 한국 AVP, 한국 PD 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남연합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노총
 울산본부,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백교회
 청년회,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함안여성회,
 맑음문화활동센터, 해외주민운동연대,해인교회, 행동연대, 행복수업협동조합,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연대 실현을 위한 울산노동자모임, 협동조합언니네, 홈리스행동,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의모임, 환경운동연합

22 April 2021

Open Letter to ASEAN Leaders: Recommendations from CSOs in Myanmar and in Southeast Asia to the ASEAN Special Summit on Myanmar

To: Leader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Your Excellencies,

In alignment with the upcoming special ASEAN Summit on Myanmar on 24 April 2021, we, the civil society members in Myanmar and in other Southeast Asian nations as well as undersigned 328 Korea civil society organisations, jointly call on the ASEAN, its leaders and Member State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y jointly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ommunity actors in addressing the illegitimate and brutal coup and atrocity crimes committed by the military junta in Myanmar.

We welcome the decision to hold the ASEAN Special Summit on Myanmar, based on the proposal made by President Joko Widodo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 discuss the worsening situation in Myanmar following the violent crackdown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the terror campaign against civilians launched by the junta. The decision hopefully constitutes a precedent and reflects the commitment of ASEAN Member States leaders to address Myanmar's appalling situation using its highest-level policy-making body.

However, in view of ASEAN Member States' differing positions on the coup in Myanmar, we remain extremely concerned that the ASEAN Summit's response might be to consider the crisis as solely within Myanmar's domestic affairs and therefore deciding to refrain from any meaningful action in line with the "ASEAN Way" of non-interference and overzealous respect for state sovereignty.

The differing positions of ASEAN Member States has made it difficult for ASEAN to reach a consensus and resulted in equivocations and delayed responses from ASEAN, while the military junta continued its deliberate, murderous attacks on Myanmar's people, including various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much to our sorrow and anger. As evidenced from the outputs produced by the Informal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IAFMM), ASEAN responses fall well short of meeting the will of the people of Myanmar. The chair's statement of the IAFMM meeting neither specifically publicly called out the junta's brutality nor called for stronger cooperation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and Human Rights Council. Further, it also fails to mention ASEAN's commitment to supporting target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military personnel and business entities and global arms embargo and referral of the Myanmar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ith the different interests and political will of ASEAN Member States at the moment, we are concerned to what extent the ASEAN Special Summit can create an immediate and meaningful intervention to resolve the situation of Myanmar. ASEAN's collective and meaningful action to uphold democracy is warranted at this time. Any decision by the ASEAN Leaders to treat the military junta as the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Myanmar in the Summit will serve to legitimize the military junta's crimes and will thus damage not only the relationship of ASEAN with the peoples of Myanmar but the peoples' move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region as a whole.

Further, The ASEAN and its Member States must recognise the legitimacy of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the legitimate and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of Myanmar, given that it represents 76% of elected Members of the Union Parliament, ethnic leaders,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and general strike committees endorsed by the people of Myanmar. Therefore, Myanmar must b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not by the illegal junta who is trying to take full control of the country through its unprecedented brutality.

As we send this letter to the ASEAN Leaders, the violence and killings by the Myanmar military against protesters and supporters continue with no sign of abating. The junta have so far arbitrarily killed 738 and arrested 3,261 people, including women, elderly people and children.¹ In Karen and Kachin ethnic areas, the junta has been bombing villages, displacing more than 30,000 villagers. In these bombing attacks,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lost their lives as well as faced difficulties not only about their safety, but also for health, shelter and food. Among those fleeing were women, children, elderly and pregnant women who are due to give birth. There was also a case of a woman who gave birth to her child while she was fleeing. Given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victims, and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region's security and political stability, we strongly urge ASEAN to take firm and effective actions to address the Myanmar coup through the ASEAN Special Summit.

We urge all ASEAN leaders to listen to, strongly consider, and to heed the aspirations and will of the peoples of Myanmar. The voices of Myanmar people who have risked their lives in defense of democracy and justice must be the anchor, the conscience, behind any modality and outcome of the ASEAN Special Summit on Myanmar.

Therefore,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s of Myanmar, we call on the ASEAN Leaders to immediately take the following actions:

- Reject the presence of illegitimate military junta as the representative of Myanmar in the Summit;
- Give the seat of Myanmar in the ASEAN Summit to its legitimate representative,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¹ Data from 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as of 19 April 2021

- Call for all violence against citizens and peaceful demonstrators as well as supporters and journalists to cease, for the release of all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protesters and protest leaders and journalists, and the lifting of all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and on communications more generally;
- Establish a solid and coordinated response among the ASEA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ith the aim of sending a joint delegation to Myanmar to monitor the situation, put ending the violence and helping negotiate a democratic, peaceful and human rights-based solution;
- Fully support initiativ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a global arms embargo and target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military, their personnel and business entities related to them an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Myanmar situation to the ICC;
- Ensure access for humanitarian aid and health support to all affected areas in Myanmar including opening cross-border humanitarian aid corridors;
- Put the safety, security, and wellbeing of Myanma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cluding the Rohingya, as one of its priorities;
- ASEAN countries must not return Myanmar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back home regardless of their status. ASEAN destination countries should extend the Myanmar migrant workers employment contracts for another year or more;
- Take substantial measures against Myanmar, including suspending Myanmar's membership of ASEAN. ASEAN shall only lift the suspension once the military junta accepts the authority of National Unity Government, the military places itself fully, permanently and unconditionally under NUG control, the junta is brought to the ICC, and democracy is fully established.

Only by moving beyond the "ASEAN Way" of consensus and non-interference can ASEAN intervene in the Myanmar situation in a meaningful and robust way. Myanmar is on the verge of becoming a failed state, and it is in ASEAN's best interest to take a firm stance on these urgent and distressful developments. Failure to do so risks not only further damaging ASEAN's reputation as an effective regional body that can meaningfully contribute to a solid, just, humane and viable community of nations but will undermine ASEAN's efforts to achieve its vision and mission of a caring, just and peaceful community of nations and peoples.

Sincerely,

Signed by 328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Civil Society in Support of Democracy in Myanmar, Action & Solidarity in Korea,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ctivists Group on the Street, Aksi Lilin Jakarta, AKUKFEM,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 In Korea, Andong YWCA, Ansan YWCA, AnYang YWCA, Areum Nara,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Asian Migrant Women Center, Association of Korea Minjung Theologians,

Blooming School, BUCHEON YWCA,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BUSAN YWCA, BUTTL' Chunganm
 Human Rights Educational Activist Group, Catholic Association Of Labour And Elderly (Masan Diocese),
 Catholic Women's Center,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HANGJAK21, Changnyeong Environmental
 Movement Union, Changwon Icoup Consumer Life Cooperative, Changwon Minyechong, Changwon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Changwon Women's Association, Changwon Women's Center Jinhae Hall,
 Changwon YMCA, Cheonan YWCA, Cheongju YWCA, Cheongma History Meeting, Cheongman Haengwoong,
 Child Fund Korea Gyeongnam Children's Protection Center, Children's Book, Children's Peace Library,
 Christian Association for Community Organizing, Christian Youth Academy, CHUNCHEON YWCA, Chung
 Soon-Wook Of Changwon City, Chungju YWCA, Church and Society Committee of PROK, Chwnwon YWCA,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Press Of Gyeongsangnam-Do Provinc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 Geoje, Citizens' Solidarity Tongyeong Branch, Civic Association Of Masan, Changwon And Jinhae
 With Grandmother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ivic Association Of Tongyoung Geoje With
 Grandmother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oalition of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in Ulsan,
 Cooperative Unnine(Sister's), Critical_group Sigak, Cultural Incheon Network, DAEGU YWCA, Daejeon YWCA,
 DAPLS, Dasan Human Rights Center, Doingle Around, Donghae YWCA, Dongyo Childish Grownups,
 Ecologic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ultural Center, Ecumenical Youth Cousil in Korea, Education Hope
 Gimhae Parent Association, Education Hope Gyeongnam Parent Association, Education Hope Sacheon Parent
 Association, Enjoyable SW Thinking Lab, Eyes Of Citizens, Fellowship with the Sufferers, Fine Dust Resolution
 Gyeongnam Citizens' Headquarters, FKTU Ulsan Regional Office, Forest Of Life In Gyeongsangnam-Do,
 Freedom Dignity and Asia, Gangneung YWCA, Gathering Of Gyeongnam Teacher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Life, Geoje Civic Energy Cooperative, Geoj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GEOJE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Gimhae Education Solidarity, Gimhae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Ecological Division, GIMHAE YWCA, GJIF(Gwangju independent film), Goesan Gender Equality Lecturer's
 Group, Gommasil Childre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od Friends, GOYANG YWCA, Green
 Party Korea, Green Party Seoul, GREEN KOREA INCHEON, GreenKorea Legal Center, GUNSAN YWCA,
 Gwangju Alliance Against Opposing the Military Regime and Supporting Democratization in Myanmar, Gwangju
 Asia Sisterhood Network, Gwangju Cinema Solidarity, Gwangju Green korea United, Gwangmyeong Young
 Women's Christion Association, Gwangyang YWCA, Gyeongnam Amphibian Network, Gyeongnam Energy
 Transition Network, Gyeongnam Grass Root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Gyeongnam Green Party,
 Gyeongnam Migrant Center, Gyeongnam Solidarity For Safe School Meals, Gyeongnam Sunlight Development
 Cooperative, Gyeongsangnam-Do Branch Of The National School Non-Regular Workers' Union,
 Gyeongsangnam-Do Civic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nam-Do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nam-Do Women, Moms, Peoples' Party, Gyeongsangnam-Do Women's Human Rights
 Counseling Center Of Women's Association, Haein church, Haemalgeum(Sunny) Cultural Activity Center,
 Haman Women's Association, Han Church, Hana Church, Hanam YWCA, HANBAIK CHURCH YOUNG
 ADULT, Hansalim Gyeongsangnam-Do, HANSALIM KYUNGNAM, HAPPYCLASS MEDITATION COMMUNITY,
 Homeless Action, Hope Woongsang, Human Rights and Sport, Human Rights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NCCK), I Coop Consumer Life Cooperative In Jang Yu,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Incheo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Incheon People Solidarity, Incheon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INCHEON YWCA,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Institute For Deliberative
 Democracy And Environment,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Inter-religious Climate and Ecology Network,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Ivy Humanities School, Jakarta Candlelight Action, Jecheon YWCA, Jeju
 Dark Tours, JEJU YWCA, Jeonggeum Church, Jeonju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JEONJU YWCA,
 Jeonju's Solidarity for Democracy in Myanmar, Jeonkyojo Incheon, Jinhae Women's Association, Jinhae
 YWCA, Jinju Environmental Movement Union, Jinju Reg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Jinju Women's
 Association, Jinju YMCA, JINJU YWCA, Joint Committee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Repression,
 June 10 Minju Gyeongnam, June 15 Joint Declaration Changwon Branch, June Democratic Resistance Spirit
 Succession Gyeongnam Association, Justice Party Gyeongnam Youth Student Committee, Justice Party
 Gyeongsangnam-Do Party, Justice Party Yangsan Regional Committee, Justice Party's Namhae Hadong
 Regional Committee, Kangzinoop Church, KctuLaw Ulsan, KCTUUI, KFEM, KHMU (Korea Health and Medical
 labor Union), KIDOKYOMINHOE, Korea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 Korea Eco Farme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Incheon,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Gimhae And Yangsan,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Machangjin,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Sacheon, Korea Federation Of Producer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Environment, Korea Rurban Regeneration

Citizen's Solidarity, Korea Teachers Union-Ulsa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omen's Committee, Korean Disability Forum,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Ulsan district),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SCF, KTU Yangsan Middle School Branch, Kwangju YWCA, Kyungnam University Alumni Community, Kyungnam University Environmental Group, Labour Party Gyeongsangnam-Do Provincial Party,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Ulsanjibu, Like Pearls, M.M.C, Mandooparty to prepare a new church, MARCO(Migration Action Research Community), Masan Icoup Consumer Life Cooperative, MASAN YWCA, Media Christian Solidarity, Migrant World Film Festival, Migrant World TV, Migrants Trade Union(MTU), Militants for Workers' Liberty(Ulsa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MOKPO YWCA, My Neighborhood Small Library, My Sister's Home, My Sister's Place, Myanmar Democracy Network in Korea, Naeseo Village School, Namhae Women's Association, Namwon YWCA, Namyangju Women's Center for Migrant Workers, National Clergy Conference for Justice and Peace,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Busan Gyeongnam Federation, National Women Farmers Association Gyeongsangnam-Do Union, National YWCA of KOREA, Nature And People, New Bodhisattva Network, Non San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NYJ YWCA, OFM KOREA JPIC, Osan welfare community center, Paju YWCA, ParkJongCheol Memorial Foundation, Pax Christi Korea, Peacemakers, PEACEMOMO, People In My Neighborhood (Community For Life And Autonomy), People, not Profit, People's Party Gyeongsangnam-D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Platform.C, Pohang YWCA, Progressive 3.0, PROK, PROK Namsindo, Prun Naeseo Community Association, Pyeongtongsa In Masan, Changwon And Jinhae, Rainbow Vision, Refresh Community, Refugee Rights Center NANCEN,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e Of Life And Arts, Resident Association For Safe And Happy Yangsan, Residents' Committee For Coal Power Plant In Sacheon, Namhae And Hadong, Sacheon Ecological Environment Research Society, Sacheon Women's Association, Sacheon YWCA, Sangnam Film Production Center, SEBASA, Sejong YWCA, Seochon YWCA, Seomjingang River And Jiri Mountain People, Seong-Mun-Bakk Church, Seongnam YWCA, Seoul Disabled People's Right Film Festiva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ARI Alumni Association, SGPO YWCA, Shancheong Humanities Meeting Leadership Society, Sidaebogjigong-gam, Social Cooperative Celandine, Social Cooperative Containing A Village, Social Cooperative Handle Sandeul,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Ulsan, SOK CHO YWCA,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Peace & Humanrights, South North Korea Railway, SSSWC, Students' March, Sumdol Presbyterian Church, SUNCHEON YWCA, Sungmisan School, Supporters Group for Migrant Workers Movement, SUWON YWCA, TEN FOR ONE, The Anglican Church of Ulsan, The Declaration of Global Citizen, The Federation Of Korean Artis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Geoje Branch, The Jeonnam National Church Man's, The Power of Incheon Citizens, The Research Ins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In Incheon, The Society For The Making Of A Real Village To Live In, Tongyeong Citizens' Culture Group 'Tongro(Aisles)', Tongyeong City Committee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ongyeong Geoje Environmental Movement Union, Tongyeong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TongYeo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Transgender Liberation Front (TLF), Uijeongbu YWCA, Ulsan Bukgu Contingent Workers Center, Ulsan Civil Organizations that support Myanmar's democracy (66 organizations), Ulsan Green Party, Ulsan Labor Education Community, Ulsan Labor Humanrights Center, ULSAN MIGRANT CENTER, Ulsan Parents EduCoop, Ulsan People's Solidarity,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Ulsan worker group for Workplace struggle and Class solidarity, Ulsan YMCA, UNION, Vegetarian Peace Solidarity, Wewood Small Library, WFFIG, Won Buddhist Civil Society Network, WONJU YWCA, Woongsang Labor Counseling Center Woongsang Story, Worker's Solidarity from Below in Jeonbuk, Yangsan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Yangsan Icoup Life Cooperative, Yangsan Parent Movement, Yangsan Women's Association, YANGSAN YWCA, YEOSU YWCA, YMCA Geoje, YMCA Gimhae, YMCA Masan, YMCA Yangsan, Yoon Sang-Won Memorial Association, Young Deung Po Urban Industrial Mission, Young Kang Church, YOUNGPA Church, YWCA Gimhae, YWCA Masan, YWCA Pyeongtaek, YWCA Ulsan